

“북극곰 연기, 기린까지 속더라고요”

배우 안재홍(34)을 설명할 때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여름 방송한 드라마를 통해 그는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빼앗았다. 2009년 단편영화 '구경'으로 데뷔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 등 꾸준히 연기활동을 해왔지만 여성 팬을 '삼공'하게 만든 건 처음이다.

코미디 영화 '해치지 않아'(감독 손재곤·제작 어바웃필름) 개봉을 앞두고 7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안재홍에게 '주변의 달라진 시선'을 체감하는지 물었다. 그는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로 "인기가 있다면 그건 작품의 공"이라는 설명을 굳이 곁들였다.

어쨌든 안재홍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15일 '해치지 않아'가 개봉한다. 영화를 위해 체중 10kg을 감량해 훈훈한 매력까지 뽐내는 그는 북극곰의 털을 쓴 변호사로 나선다. 영화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물원을 어떻게라도 되살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동물원 희생 미션을 받은 변호사 태수(안재홍)는 동물원 직원들을 설득해 동물 털을 쓰고 흉내를 내자는 아이디어를 낸다. 반신반의하던 이들은 작전에 동참해 각각 사자(강소라), 기린(박영규), 나무늘보(전여빈), 고릴라(김성오)가 된다.

"제가 언제 또 북극곰을 해보겠어요. (강)소라도 그러더라고요, 언제 사자를 연기해보겠느냐고. 하하! 북극곰은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그 옛날 밀가루와 콜라 광고모델이었고요. 이번 영화를 계기로 우연히 마주치는 북극곰 인형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사이즈별로 사서 집에 모아놨죠."

워낙 동물을 좋아해 SNS로도 동물 계정을 팔로하는 안재홍은 촬영 전 북극곰의 행동을 관찰해 몸에 익혔다. 감량 몸무게와 똑같은 10kg 무게의 북극곰 털을 뒤집어써야 했다. 하지만 털을 쓰고 연기한다고 쉬엄쉬엄 할 수는 없었다. 북극곰의 몸집이 거대해 털에 들어가면 안재홍의 눈은 곰의 목 부분에 닿았다. 때문에 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그 틈으로 밖을 보면서 연기해야 했다. 곰의 머리 부분은 자신의 머리 위에 짚어졌다.

"털이 정말 디테일했어요. 기린 방사장에서 촬영할 때인데, 진짜 기린이 촬영용 털을 보고

곰의 목부분 구멍 통해 밖을 보면서 연기 동물 계정 팔로하며 열심히 곰처럼 행동 제가 언제 또 북극곰을 해보겠어요 하하!



반갑게 반응하더라고요. 진짜 기린까지 깜빡 속인, 완성도 높은 탈입니다. 하하!"

'해치지 않아'는 동물원 직원들의 황당한 작전을 그린 코미디이지만, 한편으론 안재홍이 맡은 태수가 냉정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벌이는 분투이기도 하다. 그는 대중에 이름을 알린 영화 '족구왕'을 시작으로 2030세대의 현실과 성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기해 왔다.

"'족구왕'은 청춘영화가 아니라 '스포츠 캠퍼스 장르'인데도 '청춘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어요. (웃음) 같은 세대의 모습을 표현하겠다는 각오는 아니지만, 제가 맡은 인물에 집중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그런 평가가 뒤따르더라고요. '해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 그게 제가 맡은 캐릭터가 사는 길 같아요."

안재홍은 2월 새 영화 '사냥의 시간'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지난해 쉽 없이 내달린 결과물을 하나 돌씩 공개한다. 이어 단편영화도 연출할 계획이다. '열아홉, 연주' 등 단편영화와 연출 경험을 가진 그는 "연기하는 제게 연출은 큰 자국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영화 '해치지 않아' 스틸 컷. 사진제공 | 에이스메이커뷰비박스

▶안재홍은 영화 '해치지 않아' 촬영을 위해 10kg 무게의 북극곰 털을 쓰고 연기했다. 힘에 부친 일이었지만 "인물에 집중하며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이 캐릭터가 사는 길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제이와이드컴퍼니



임재범 손지창

임택근 전 아나운서 별세에 임재범·손지창 가족사 이슈

1950~60년대를 풍미한 임택근 전 아나운서가 88세를 일기로 11일 별세했다. 가수 임재범과 연기자 손지창의 아버지가기도 한 그의 타계 소식에 이들의 가족사가 새삼 관심을 들었다.

임택근 전 아나운서가 11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폐렴 등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는 아들인 가수 임재범과 유족이 지키고 있다. 또 다른 아들로서는 연기자 손지창이 있다. 임재범과 손지창은 '이복형제'이며, 이들은 복잡한 가족사로 세간의 시선을 받아왔다. 임재범은 임 아나운서가 두 번째 부인, 손지창은 세 번째 부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다.

임재범은 2011년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아버지와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손지창도 이후 이모부의 성(姓)을 따라야 했고, '사생아'라는 시선 속에 큰 복무를 하지 못했던 사연 등을 공개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한때 서로 만나지 않다가 가족사를 공개한 뒤 잠시 교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전 주한 미국 대사인 성 김(한국명 김성웅)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임 전 아나운서는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 중계에서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멘트를 시작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이는 이후 스포츠 중계방송의 공식이 되다시피했고, 고인은 한국 방송사를 개척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연희대(현 연세대) 1년생이던 1951년 중앙방송국(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그는 1964년 MBC로 옮겨가 1969년 아침 프로그램인 '임택근 모닝쇼'를 진행했다. 프로그램 제목에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첫 무대였다. 이후 MBC 사장 직무대행,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다.

발인은 14일 오전 8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주진모 '휴대전화 해킹' 후폭풍...2차 피해자 어찌나

톱스타 A와 메신저 내용 유출 곤혹 주진모 배우자 SNS까지 혐오 댓글



주진모

배우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적인 내용이 각종 SNS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사건은 주진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여기서 빼낸 각종 내용과 사진 등을 이용해 금품을 협박받은

것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주진모와 톱스타 A로 알려진 남성이 주고 받은 문자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되면서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이들의 대화 내용 가운데 여성들의 사진과 이와 관련한 자극적이면서 저급한 표현 등이 포함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모의 소속사 하이브 라더스코리아는 12일 "유출된 정황을 포

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하고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칭 '지라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및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면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하거나 가공해 퍼뜨릴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의 한 측근도 이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호기심을 넘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

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해당 남성이 주진모와 오랜 시간 친분을 이어온 배우라 지목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인물들의 SNS에까지 찾아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주진모와 지난해 6월 결혼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모씨의 개인 SNS에 혐오성 댓글을 달았고, 결국 민씨는 이 계정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 연기자, 요리사 등 10여명의 연예인과 유명인들도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협박 피해까지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팬수가 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골든 디스크 어워즈 무대에서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뉴스1

세계팬도 사로잡은 팬수, 이젠 글로벌스타!

"2020년을 '팬수 세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EBS 김명중 사장이 올해 초 내놓은 신년사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작년 방송가 안팎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던 펭귄 캐릭터 팬수가 해외 한류 팬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덕분이다. 김명중 사장은 신년사에서 "팬수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콘텐츠와 캐릭터 산업에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팬수를 향한 한류스타들의 '팬심'이 그 발판이 되고 있다. 팬수는 지난해 12월 말

MBC '2019 방송연예대상'에 이어 5일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 출연했다. 이를 통해 각각 방송인 유재석, 그룹 방탄소년단 등과 만나 화제를 모았다. 방탄소년단은 무대에서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맞춰 팬수와 함께 춤을 쳤다. 또 그룹 뉴이스트와 트와이스, 가수 지코 등도 무대 아래에서 팬수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열렬 팬"으로서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돌 멤버들이 앞 다투어 공개한 '팬수 인증샷'은 SNS상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에 팬수에 관한 해외 팬들의 호기심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짤' 빠르게 공유...해외팬들 열광 BBC·넛케이 등 인터뷰 요청 쇄도

아르헨티나, 태국 등 각국의 언어로 "팬수가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팬수의 정보를 영어로 번역한 글과 팬수가 자신의 유행어인 "팬-하!(팬수 하이)"를 외치는 '짤'(짧은 영상)이 빠르게 공유됐다. 해외 팬들은 팬수의 활약상에 "신기하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팬수의 인기로 영국 BBC,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넛케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12일 "팬수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해외 매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